

#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8

##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목	차
01_	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02_	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03_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04_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05_	전원도시의 전통
06_	집합성과 공유공간
07_	표준화
08_	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09_	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저자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호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미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장'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 이상 : 목적과 수단

1927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까지 주택건축의 이념에 관한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주거 이념에 대한 평가보다는 분석을 먼저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자체보다는 이를 둘러싼 개인과 그룹의 활동을 통하여 좀더 일반적인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주택의 발전문맥을 밝히기 위해 192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등장한 건축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까지 주택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 더 아흐드

1927년은 1900년부터 1940년에 이르는 기간 중 하나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택에 관한 새로운 이념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1927년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바이젠호프 집합주택 전시회에서 새로운 이념이 명확히 표명되었고, 미스 반 데르 로에, 르 꼬르뷔제, 아우드, 스타뎀 등의 건축가들이 참가하여 집합주택을 설계하였다.

이 전시회에서 새로운 이념들이 도입되었는데, 한 가지 예로 자유로운 평면(open plan), 흰 벽면(clean white surface), 큰 창(large window), 그리고 기술적으로 잘 갖추어진 부엌(technically equipped kitchen) 등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시 독일에서 일어난 나치스와 좌익 건축가 사이의 대립과정도 특이할만하다. 네덜란드에서는 독일에서 발생한 정치적 대립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대립은 1950년까지 이어진다.

1920년대 초, 할렘공예학교에서 암스테르담파 건축가였던 보르크킹(Vorkink)와 블라우(Blaauw)의 가르침을 받은<sup>1)</sup> 메르 겔바하(1901~61)는 1927년 이후 주택의 발전과정에 관하여 비평적 역할을 하였다.

메르 겔바하는 1926년, 소련 방문을 계획하고 있던 로흐렘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메르겔바하 자신에게는 건축과 사회에 대한 이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메르겔바하는 베를라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로흐렘은 베를라헤와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혁명·사회 지식인 협회'의 멤버이기도 했다.<sup>2)</sup>

메르 겔바하는 로흐렘이 소련으로 떠난 이후에도 얼마간 로흐렘의 사무실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메르겔바하는 프랑크후르트로 가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던 스타뎀(M. Stam)과 함께 9개월 동안 작업한 바 있다. 메르겔바하는 스타뎀이 더 스테일<sup>3)</sup>에 기고한 바와 같이 프랑크후르트의 진보적인 경향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로 귀국한 이후에도 지반 침하가 되지 않는 독일의 집합주택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메르겔바하가 암스테르담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네덜란드 건축가 조직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생긴 것은 프랑크후르트에서였다. 1929년 그는 학교 동료였던 카르스뎀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설립한다. 카르스뎀은 네덜란드가 주거에 대한 새로운 이념의 적용에 있어 독일에 뒤떨어지기 시작한 이유를 암스테르담의 탓으로 돌렸다.<sup>4)</sup>

메르 겔바하가 1927년 프랑크후르트로부터 귀국하여 흐루네베언(Groenewegen), 카르스뎀, 파우베르트(van de Pauwert) 등

의 출신학교 동료 몇 명과 교류를 갖고, 얼마 후 더 아흐드(De 8)라는 새로운 그룹의 선언문을 잡지 『i10』에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잡지는 모든 예술의 통합을 목표로 창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sup>5)</sup>

건축가는 미학적 과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그의 신념에 바탕을 둔 이 선언은 polemic(polemical tone)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 더 아흐드는 반미학적(non-aesthetic)이다.

\* 더 아흐드는 선언한다. 더 아흐드가 새로운 건축물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얼마간의 열악한 평면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전시용 파사드(show-piece facade)를 설계하는 것보다 모양이 보기 흉하더라도 기능적인 건물을 짓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런 언설은 더 아흐드와 더 스테일 사이의 대립성과 유사성을 명확히 구분 짓고 있다. 한편, 이 선언의 내용은 암스테르담파에 대한 아우드의 비평과도 흡사하다. 1918년 아우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건축의 양식적 발전에서 보면 순수하며 기술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서 좋은 건축이란 단지 아름다운 주택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sup>6)</sup>

암스테르담파에 대한 메르겔바하 비평은 때로는 건축가가 주택건설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었다. 그의 비평은 베를라헤의 계획원리를 고발하는 동시에 건축 그 자체에 있었다. 실제 베를라헤는 1932년 잡지 『더 아흐드와 오빠바우』에 발표한 암스테르담파 주택에 대한 언급에서 다양한 polemic(polemic)을 남득할만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였다.

1) B. Rebel, Ben Merkelbach, Propagandist in Woord en Daad van de Nieuwe Ideeën omtrent de Volkswoningbouw, (Utrecht, 1973), p.6. 미간행 논문  
2) J. van de Beek and G. Smienk, Ir. J. B. van Loghem, p.32.  
3) ABC, No.19(1926), p.1. 스타뎀은 스톡홀름시 시청사와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1922년에 계획된 두스부르흐와 에이스뎀의 공동작품인 로센베르크 저택 사이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미학적 관심에는 부정적이었다. 이 세 계획은 도판에 X로 표기되어 출판되었다.  
4) Rebel, p.7.  
5) i 10, 1, No. 3(1927), p.126.  
6) J.J.P. Oud, 'Bouwkunst en normalisatie bij den massabouw', p.78.

암스테르담파에 대한 공격은 단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주택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준이었다. 또한 “아흐드는 반미학적이다”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언은 더 스테일에 대해서도 비평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더 아흐드는 진실된 의미에서 합리적인 것을 함유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것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더 아흐드는 비입체파적이다.”

더 아흐드에 대한 공격은 포괄적인 건축 형태의 시스템보다도 오히려 배타적인 시스템에 있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학적 운동이며 1921년 아우드의 더 스테일 탈퇴는 더 스테일과 1927년 더 아흐드 선언과의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몽드리안과 아우드, 모두 더 스테일의 활동에서 큐비즘 이론을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큐비즘 성격은 더 스테일 초기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아우드가 계획한 스케베닝언 해안 집합주택 계획안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당시의 건축적 상황에 대항하기 위한 ‘비평적 대응’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견해에도 불구하고 더 아흐드는 즉시 더 스테일을 비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메르겔바하 리트벨트 사이에 심각한 개인적 대립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었다.<sup>7)</sup>

돌이켜 보면 1927년의 기점에서 미학에 대한 의도적 거부는 절충주의(eclecticism)를 멀리한 상태에서 베를라헤적 접근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더 아흐드 자체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또한 이런 희망이 특히 집합주택에 있었다는 점이다.

1926년, 부건, 듀이커, 그리고 비벤하가 더 아흐드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이념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오쁘바우와의 연합

더 아흐드는 주택건축에 관한 새로운 이념에 대하여 강한 주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건축가 그룹이 되지 못하였다.

또 다른 그룹인 오쁘바우는 1920년대 초기에 로테르담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그룹의 설립 당시 목표를 나중과 비교하여 볼 때 이념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었고 목표 또한 확고하게 정해져있지 않았다. 고클롬아우트(W.Kromhout)는 로테르담에서 ‘건축과 우정’이라는 협회의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이는 무익한 것이었다. 그는 로테르담에서 1908년 결성된 ‘네덜란드 건축가협회’를 모델로 하여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려고 하였다. 네덜란드 건축가협회는 이미 전문적인 조직으로서 순수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건축자재 업자와 건설업자는 이 그룹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오쁘바우 그룹의 멤버들은 다양한데, 이 중에는 고클롬아우트에게 배운 프루흐트(Van der Vlugt), 모리에(Granpre Moliere) 등이 있으며, 나중에 아우드, 스타(Stam), 에이스테런(Van Eesteren), 떼인(Van Tijn) 등이 가입하였다.

그러나 1926년 스타가 프랑크후르트로부터 일시 귀국하고 1927년 로흐헴(Van Loghem)이 오쁘바우와 협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쁘바우는 더 아흐드와 동등한 그룹으로서 바뀌어 있었다.

1928년, 네덜란드 건축가인 베를라헤, 리트벨트, 스타가 참가하여 라사라(La Sarraz)에서 결성된 CIAM은 모리에의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폭넓은 영향과 병행하여 두 그룹(여기서는 더 아흐드와 오쁘바우를 말함-역자 주)의 관심이 동시에 확대되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30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CIAM 제3회 회의를 계기로 두 그룹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떼인과 메르겔바하는 암스테르담 인도인 거리의 배치계획에 관한 공동작업과 태양위원회의 활동으로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유기적 주거지구에서의 개방적 배치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작업에서의 협력은 두 그룹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림 1. 리트벨트, 슈뢰더 주택의 2층 평면도 (유프레흐트, 프린스 헨드리코란),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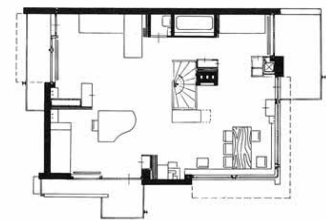


그림 2. 리트벨트, 슈뢰더 주택의 2층 평면도 (가동식 칸막이가 접힌 상태) 가동식 칸막이의 설치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형태와 가동식 칸막이를 한 쪽으로 밀쳐놓은 상태(4구획으로 구분되어있던 공간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주택은 더 스테일의 논쟁대상으로 특징지를 정도로 새로운 공간개념을 구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용 주택의 계획에 새로운 접근성도 보여주고 있다. 2층에는 가동식 칸막이(movable partitions)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정도와 공간의 개방성을 간단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7) J. B. Bakema가 필자에게 보내준 지적에 근거함. J. B. Bakema, Rotterdam.

이런 결과로 1932년 1월, 격월간 잡지 「더 아흐드 엔 오프바우(De 8 en Opbouw)」가 출간되었다. 1927년 더 아흐드의 선언으로부터 1932년 「더 아흐드 엔 오프바우」는 잡지가 발행되기까지 5년간은 신건축에 대한 논쟁은 격렬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다양한 이념이 실현되었다. 특히 이것은 스위스와 독일의 건축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잡지 「더 아흐드 엔 오프바우」는 스위스와 독일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당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준 스위스 뉴불(Neuhuhl) 집합주택에 관한 소개는 새로운 이념을 실현시킨 사례로 프랑크푸르트의 주택상황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더 아흐드 엔 오프바우」지의 선구적 역할을 보여주었다.<sup>8)</sup>

## 공간의 새로운 개념

제대로 된 위생설비를 갖춘 주택을 생산하기 위한 네덜란드의 목표는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도 주택을 건설하도록 접근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미학적 측면만이 아닌 새로운 공간개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즉물주의 건축가들이 주택의 방위(方位)에 대한 고려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생적인 측면과 같은 실제 생활 환경에 관심을 보여온 과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 이상으로 주택에 있어 창조적인 공헌은 공간의 가변성(flexibility)에 관한 것이었다.

## 방위와 빛

19세기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개혁적인 노력의 하나는 건강이 물리적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 데에 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의견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의 관계를 연관 지은 초보적인 통계학의 적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빛과 맑은 공기가 폐결핵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1890년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빛과 공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00년 초기 가르니에(T.Garnier)의 공업도시 제안에서 1902년 네덜란드 주택법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유도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위생적인 관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개혁은 주택법 시행이후에도 단절

된 적이 없었지만 이것은 1930년대를 통하여 계획의 수법과 미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건강과 관련하여 -깨끗함, 빛, 공기에 대한 관심은 주택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개혁파, 보수파를 불문하고 높아지고 있었다.

주택에 있어 빛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주택법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적절한 방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어윈(R.Unwin)의 저서 『코테이지 계획과 공통감각』(1907)은 네덜란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과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기본적인 것은 모든 주택의 얼굴이 태양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빛, 달굴함, 건강을 가져온다. 도로의 방향과 가로에 접한 정면성은 빛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이런 방향성을 도입하는 수법이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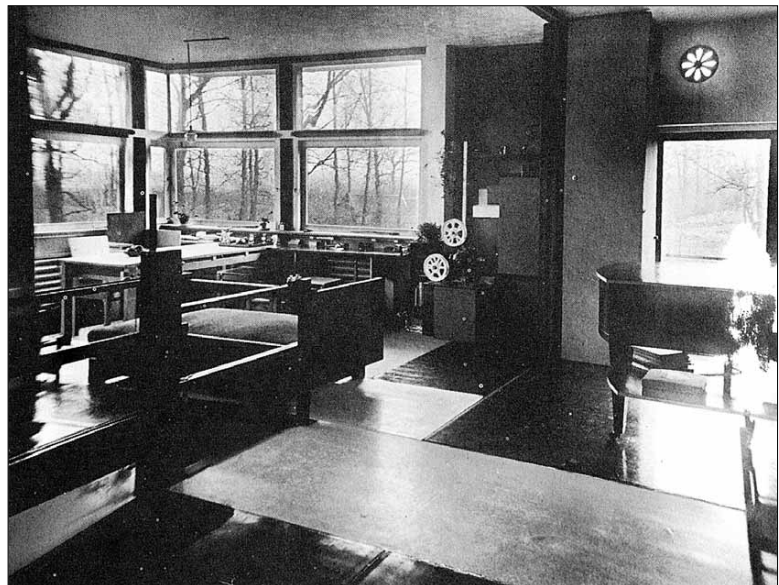


그림 3. 가동식 칸막이가 있는 2층 실내 전경

8) De 8 en Opbouw, 3, No.1 (1932), pp.23-30. Catherine Bauer, in Modern Housing, p.149. '츄리히 근교의 뉴벨(Zurich Neuhuhl)은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커뮤니티' 로 기록되고 있다.

9) Raymond Unwin, Cottage Plans and Common Sense, Fabian Tract, No.109(Buxton, 1902), p.3.

어원의 저서가 언제 네덜란드에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동을 남북 축의 방위로 배치한다고 하는 이념은 1909년까지 암스테르담 시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고려되고 있던 사항이었다. 같은 해, 암스테르담 주택 심의회는 암스테르담시 신시가지의 주택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대부분은 알코브 공간으로 구성된 주택내부에 대한 것으로 "신선한 공기로 충만 되어 있는 사람과 태양의 유익한 효과를 받고 있는 사람은 통풍이 잘 안되고 조명시설이 잘 안되는 방에서 지내는 사람보다 질병에 대해 면역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한다.<sup>10)</sup>

위원회는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이 알코브형 침침공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건물 폭이 좁은 쪽에는 건축하지 않는 대신 공유정원을 두는 배치 이념을 제안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제안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가로 배치계획에서 우리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전체적으로 도시확장계획의 주요 방위는 동서 축으로 형성되었다. (생략) 일반적으로 남북 축으로 형성된 방위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영국과 같이 대지의 남쪽과 북쪽에는 건설하지 않았다. 이것은 통풍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다."<sup>11)</sup>

이것은 일자형 주동배치(strokenbouw)의 선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암스테르담과 같은 도시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원도시 지역에서는 간단히 실행 가능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1911년 헨헤로(Hengelo)에 건설된 전원마을 어뜨

란싱크(Het Lansink)집합주택은 의도적으로 건물 군을 남북축의 방향으로 놓은 네덜란드 최초의 사례였다.<sup>12)</sup> 이후 어뜨란싱크 집합주택은 도로를 향한 남북축의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1902년 시행된 주택법의 요구조건에 따라 진행된 주요한 확장계획은 1909년 연구위원회의 비판을 받아 암스테르담 근린지구와 같은 동서방향의 도로 배치를 피하기 위한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13년 베를라헤의 프레이베익(Vreewijk) 전원마을 계획은 남북 축 도로 배치로 진행되었지만 이는 헤이그나 암스테르담의 확장계획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모리예가 계획한 후반기의 프레이베익 전원마을 건설은 엄격하게 남북 축 도로 배치가 적용되었다. 이는 나중에 더 야흐드와

오쁘바우 건축가들에 의해서 높이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방위에 바탕을 둔 배치 계획 이념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지테에서 베를라헤로 이어지는 전통적 방식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동의 폐쇄적 배치방법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사례를 제외하고 폐쇄적 배치는 미학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1920년대 건축가 사이에 폐쇄적 공간이 인간 공동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형태로 보았던 시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을 별개로 보더라도, 오스트싼(Oostzaan : 1922~24), 니벤담(Nieuwendam : 1923~28),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Watergraafsmeer : 1923~28)와 같은 전원도시지구에서는 계획방식이 오히려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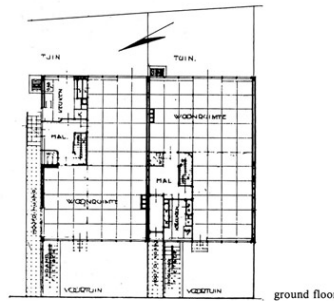


그림 4. 리트벨트, 민영 집합주택의 1층 평면도 (유틀레흐트, 에라스무스란, 19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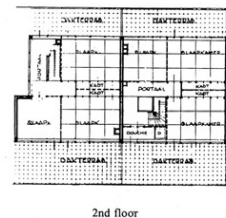


그림 6.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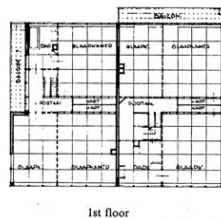


그림 5.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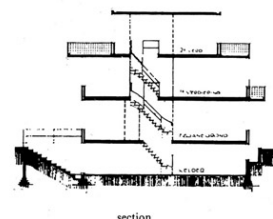


그림 7. 단면도

10) Amsterdamsche Woningraad, Rapport over de Volkshuisvesting in de Nieuwe Stad te Amsterdam, pp.11-12.  
11) Amsterdamsche Woningraad, p. 16.  
12) Hengelo'sche Bouwvereniging, Tuindorp Het Lansink, p. 13.

화된 마을형 공간(village-type space)의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런 중심적 공간에 해당하는 접근에 방위가 계획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1923년, 몇 가지 측면에서 네덜란드 최초의 기능주의자라 할 수 있는 쓰비르스(Zwiers)의 저서 『작은 주택』이 출판되었다. 그는 “거실은 가능한 햇빛이 많이 비추는 곳에 배치하고 부엌이라든가 그 밖의 서비스 공간은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추천하고 있다.<sup>13)</sup>

가로 배치계획에 관한 접근은 북동 방위와 남북 방위 사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북 축으로 연속되어 있는 거리를 따



그림 8. 외부전경  
이 집합주택은 노동자를 위해서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메르켈바흐는 1932년 더 아흐드 엔 오 쾰바우의 장간호에 몇 개의 암스테르담파 관련 집합주택과 나란히 개제하였다. 예를 들면, 기프호크 집합주택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간결성과 계획의 순수성이 결여되었지만, 여기서는 내부와 외부의 연속성, 내부공간의 유연성, 신기술의 도입, 그리고 독립적 공간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집합주택의 청문에 설치된 유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설된 네덜란드 집합주택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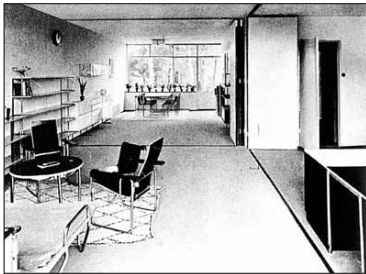


그림 9. 실내전경

라 지은 나열식 주택의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부조화를 낳았다. 1921년 이후, 집합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와 주택조합의 이런 역할이 주택건설 시장에서 퇴보되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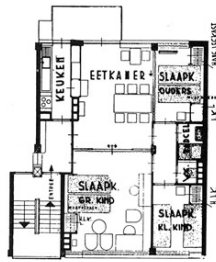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배치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대부분 실험적 문맥에 의한 것으로 지자체사회주의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던 독일의 대부분 도시에서는 방위에 따른 주택



daytime plan, open

그림 10. 부록, 엔드라흐트 주택조합이 지은 집합주택의 주간의 개방형 평면구성(로테르담, 브레이도르프, 1931~34) 남쪽으로 공유정원의 개방성을 갖는 U자형 계획에서는 지하에 창고, 유리로 뒤덮은 계단실, 그리고 세대내의 미닫이 칸막이 등, 몇 가지의 중요한 이념이 적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로에 면해서 암스테르담파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벽면(wall)'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집합주택에서의 이런 성격은 주동 내부 공유정원에 대한 주택 방위의 논리적 귀결로서 형성된 것이다. 1층에서 반 층 내려간 부분에 창고를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건물 전체는 반 층 올라간 형태가 되고, 1층 세대와 2층 이상의 세대와는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용정원과 1층 세대용의 햇간이 없기 때문에 공유정원은 좀더 넓찍하다. 그리고 이 집합주택은 로테르담에서 건설된 초기의 아우드 설계의 안전한 폐쇄형 집합주택보다 관리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다. 소규모 학교를 포함하여 공유정원은 클라이언트, 주택조합, 그리고 건축가의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11. 야간의 폐쇄형 평면구성



nighttime plan, closed

그림 11. 야간의 폐쇄형 평면구성

의 다양한 배치계획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에 있어서 일자형 주동배치 이념에 대한 관심은 네덜란드 건축가의 CIAM 참가로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이미 네덜란드 국내에서도 일자형 배치 집합주택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독일과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던 배치계획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기도 했다.

1930년, 메르 겔바하 몇몇 더 아흐드 건축가들이 암스테르담에서 태양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햇빛에 대한 중요성과 주택 및 도시계획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sup>14)</sup>

메르 겔바하 때인은 당시까지 일자형 배치 집합주택의 주창자였다. 그러나 이들 건축가는 햇빛의 위생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6년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된 태양위원회의 작업에 대한 결과는 일반적인 성격을 도출하는데 머물렀다. “햇빛은 건축에 좋다”라는 기본적인 결론으로,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32년 메르겔바하 암스테르담파 건축가들이 설계한 집합주택이 동서남북 방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sup>15)</sup>

당시 네덜란드는 CIAM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자형 배치이념을 세련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런 배치작업에 대한 국제화는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1932년, 더 아흐드 엔 오 쾰바우는 공동으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개방형 배치계획을

13) Zwiers, Kleine Woningen, pp.89-97.

14) Merkelbach Archive No.48, 16-7-1930,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ouwkunst, Amsterdam, Rebel, Ben Merkelbach, p.30에 언급되어 있다.

15) B. Merkelbach, Wonen, De 8 en Opbouw, 3, No.1(1932), p.1.

적용한 유기적 주거지구'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기본적으로 1930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3회 CIAM 회의의 결과로 도출되었고, 1년 후인 1931년 출판된 「합리적 건설방법」의 내용을 요약 발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제안은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로 보내졌다. 이 보고서에는 집합주택의 방위에 대한 공정하고 상세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동을 동서 축으로 하고 거실을 남쪽에 배치하는 세대와 주동을 남북 축으로 배치하는 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남북 축 배치가 더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sup>16)</sup>

1934년 개최된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는 몇 년 후 네덜란드 최초의 일자형 배치 집합주택이 건설되기 이전, 집합주택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모든 수상작품의 계획안은 4층 구조에 남북 축 배치의 나열형을 채용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해결의 통일성은 수상자가 설계경기 이전, 계획안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짓는데 있어 상호협력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방위문제가 배치계획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sup>17)</sup>

1937년, 네덜란드 최초의 일자형 배치 집합주택인 란드루스트(Landlust)가 암스테르담의 서부지역에 건설되었다. 이 계획은 집합주택에서 주동의 남북 축 배치에 대한 유효성을 보다 더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메르 겔바하 가르스편의 제안으로 전통적 폐쇄형 주동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 대한 최초의 계획안은 북동, 혹은 남서로 뻗은 거리를 따라 지은 나열식 주택의 배치로 수정되었다.

폐쇄형 주동과 태양에 대한 부적절한 방위를 극복하려는 것은 집합주택에 대한 새로운 발전 국면으로 인식되었다. 란드루스트 집합주택은 네덜란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집합주택의 많은 부분을 대변하는 모델이 되었다. 이런 평가로 인하여 메르 겔바하 선택은 정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때인에 의해서 수용된 역사적 관점은 란드루스트 집합주택이 이미 지나버린 이념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sup>18)</sup>

### 보편적 공간

란드루스트 집합주택의 사례는 새로운 건축적 개념의 형성과 그 실현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보편적 공간(universal space)이나 연속적 공간(continuous space) 등이 실제 유럽에서 실현되기 이전에,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더 스타일 운동의 형성으로 인해 가장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 이외에도 근대적 공간이념의 형성과정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집합주택과 관련한 이런 이념은 연속성(continuity), 개방성(openness), 보편성(universality)을 배경으로 독립적 형태의 주동이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집합주택의 배면에 정면과 같은 품위를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공간의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려된 것으로 보인다. 암스테르담에 건설된 낭만적이면서 기묘한 작품인 끌르크(De Klerk)의 에이엔하르트 집합주택은 주동 배면의 시각적 특징의 탐구라는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메르겔바하 암스테르담파 건축가가 이를 잘못 디자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공유정원은 주동 내부의 공간적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집합주택의 평등성을 내포한 베를라헤의 사회 민주주의와의 제휴는 보편성으로서의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촉진시켰다. 남북 축 주동 배치계획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로 한쪽에 집합주택을 배치할 경우, 방위를 의식하여 배치한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집합주택의 방위에 대한 비평등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같은 주거단위를 같은 방위로 반복,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경우, 주동의 평행한 배치로 인하여 생기는 사이 공간의 대부분이 동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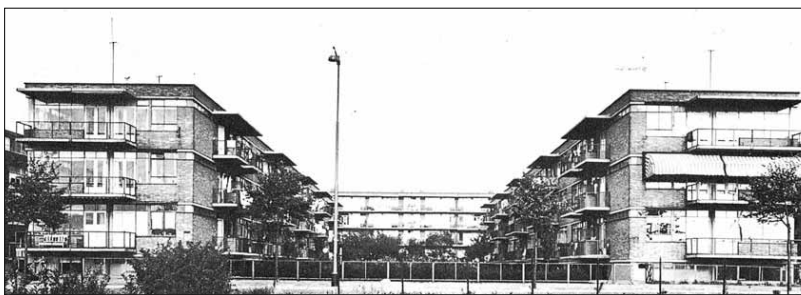


그림 12. 공유정원을 향하여 본 전경  
반 층 올라간 1층 세대의 허부공간은 르 고르뷔제의 필로티 접근과 같이 완전히 개방된 공간은 아니다. 오히려 용도를 창출하고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싸인 보드와 울타리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대지의 대부분은 주동과 그 안에 있는 공유정원과과의 접촉에 대한 문제해결로서 배려되고 있다.

16) 한 예로 Duiker의 Rationelle Bebauungsweisen (Frankfurt, 1931)에 대한 제안(No.53)을 참조할 것.  
17) B. Merkelbach, CIAM그룹의 네덜란드 멤버들에게 보낸 편지인 Archive No.61, 17-2-1933,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ouwkunst, Amsterdam, Rebel, Ben Merkelbach, p.54에 언급되어 있다.  
18) W. van Tijen, Vereenigingsbouw Landlust, De 8 en Opbouw, No.17(1937), pp.156~161.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동의 배면은 다른 한 동의 앞면에 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동의 앞과 뒤를 미학적으로 구분 짓기 위한 노력은 아우드가 까프 혹은 집합주택에서 이미 시도하였다(비록 여기서는 배치계획과 공간구성 모두가 평등성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이런 배치는 특성이 없고 단조로우며 다양성이 결여된 외부환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간적 개방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강인함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건설에서도 동일한 영향을 주었다.

### 유연성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이 단지 독립적 주동 내지는 일자형 배치 주동으로 대변되는 것은 아니었다. 건축적 차원에서 시간의 개념화와 더불어 유연한 공간(flexible space)은 기능적 요구에 좀더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미학적 이론을 도입하게 되었다.

작지만 전통적인 네덜란드 집합주택에서는 다기능 공간(multi-functional space)이 요구되고 있었다. 방 한 개로 구성되는 농가(農家)나 아니면 도시에 있는 등을 맞댄 주택이건 간에 최소한의 주거는 하나의 공간



그림 13. 도로 측에서 본 건물 파사드



그림 14. 공유정원내의 전경

에서 만들고, 먹고, 잠자는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요구되고 있었다.

주택법의 시행으로 전형적인 주택규모(typical dwelling size)가 점차 증가되어도 계속되는 경제적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경제적인 제한과 가정에서의 다양한 공간적 요구에 대한 인식은 유연한 공간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이것이 네덜란드의 공헌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특히, 19세기에 건설된 헤이그 소재의 집합주택은 보통의 방(sitting room)과 소위 아름다운 방(mooie kamer)과의 사이에 미서기 문을 설치하였다. 이런 집합주택은 20세기 초 네덜란드의 진보적인 건축가에 의해서 브루주아로 간주되었으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를 위한 대부분의 주거계획에서 가동식 칸막이(movable partition)는 기본 요소로 정착되었다.

유연성의 원리는 집합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다. 1924년, 최초이자 명확한 형태로 자리 잡은 유프레흐트에 위치한 슈뢰더 주택은 신조형 원리를 적용한 건축적 실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실험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건축적 품위를 떨어뜨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슈뢰더 주택의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가동식 칸막이의 다목적 사용은 무한한 공간적 변화에 대한 잠재성을 창출하였다(그림 1~3). 한 연구자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슈뢰더 주택을 '최초의 사이버 주택계획' 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sup>19)</sup>

1924년 두스부르흐가 유연성의 원리를 보다 설득력 있게 피력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건축은 개방적이다. 전체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고, 이 공간은 기능상의 요구에 따라 분할되어진다. 이런 분할은 내부에서는 구획면으로 외부에서

19) Geoffrey Broadbent, Meaning into Architecture, Charles Jencks and George Baird, eds., Meaning into Architecture, p. 72.에 수록. 브로드벤트(Broadbent)는 얼마나 많은 비평가가 이 주택의 정확한 성격에 대한 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는 보호면으로서의 기능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구획면은 가동성을 갖는 요소로 인하여 상호 다양한 기능적 공간으로 분할된다. 바꾸어 말하면, 구획면은 가동 스크린(screen), 혹은 슬래브(slab)로 교체 가능하다(문은 이런 범주에 속할 것이다).<sup>20)</sup>

슈뢰더 주택과 두스부르흐의 사고에서 보여지는 유연성의 이념이 노동자용 주택에 적용되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리트벨트가 설계한 중산층을 위한 집합주택(그림 4~9)은 1931년 유트레흐트의 에라스무스란(Erasmuslaan)에 건축되었는데, 여기에서도 가동식 칸막이를 볼 수 있다.

1932년, 브룩(J. H. van Broek)이 설계한 브루세란 집합주택(그림 10~16)에서의 유연성 도입은 노동자용 집합주택에서 효율적인 유틸리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주거 부분은 다양한 요구로 섬세하게 구역(zone)이 나누어져 있다. 부모의 침실공간은 가동식 칸막이를 개방함으로써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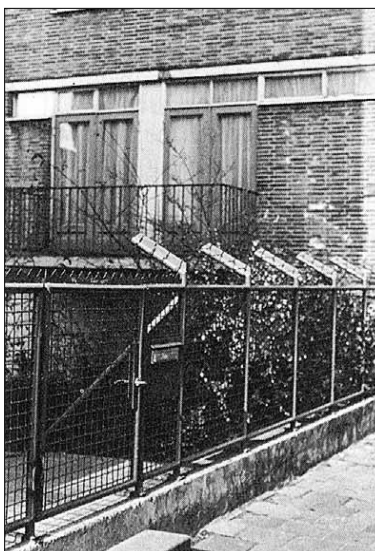


그림 15. 도로와 공유정원과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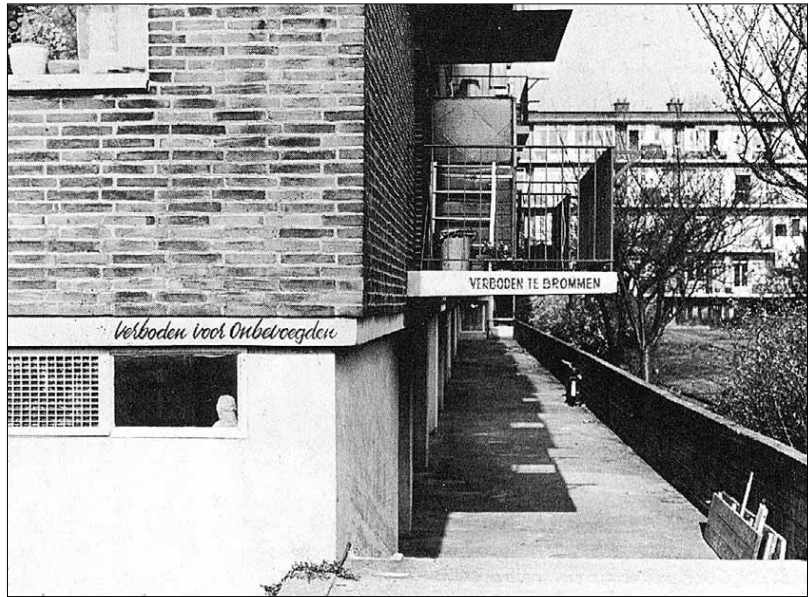


그림 16. 공유정원 내의 보도와 1층의 하부공간

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으로 바꾸고, 어린이 침실 중 하나는 가동식 칸막이를 밀쳐 세움으로써 낮 동안에 거실과 작업실로써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4개의 주실(主室)은 욕실과 화장실로 통하는 복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유연성은 가동 칸막이의 설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는 1934년에 브린크만, 프루흐트, 떼인이 함께 설계한 베르흐폴더 집합주택에 채용되었다. 각 세대의 주거공간은 두 짝의 미닫이문이 리빙-다이닝 공간(living-dining area)을 침실과 분리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낮 시간에 거실의 공간을 기능적이고 시각적으로 확대시키는데 공헌하였다. 그 결과, 발코니 쪽의 창문과 평행하는 긴 폭을 갖는 공간은 지극히 기분 좋은 공간으로 바뀌었다.

1934년, 공간적 유연성의 원리는 신즉물주의 건축가들 가운데 폭넓게 일반화되었다.

1934년에 시행된 '저렴한 노동자를 위한 주택설계경기' 제출안의 대부분은 평면계획에 가동식 칸막이를 채용하고 있었다.

이런 원리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하루 활동을 통하여 가정에서 일어나는 용도의 다양성에 대한 기술을 합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유연한 성격을 갖는 주거공간의 대부분은 신즉물주의 정신을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지속성에 대한 미학적 관심도 표출시키고 있었다. ㉮

20) Theo van Doesburg, Tot een beeldende architectuur, De Stijl, VI, No.6/7(1924), p.81.